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5월 6일(첫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목상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79장)	다 함께
*교독문	79번	다 함께
*찬송	예수께로 가면(565장)	다 함께
기도		김동진 형제
특송	예수 사랑하심을(563장)	어린이들
말씀		고명환 목사
-신앙의 길 7: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1-9절)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552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입을 성경: 시편 46-52편,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의 기도:

1.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간구하여
그의 창문을 여는 다니엘에게
주님은 늘 가까이서 응답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는 아침을 기도로,
정오를 기도로,
오후를 기도로 매듭지어 갔습니다.

세월은 지나갔지만
그 창문 곁에서
그의 주님과 다니엘의 사귄은 더욱 견고해져 갔고
주님은 그가 섭리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를 가까이하는 다니엘에게 보여 주시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음식이었고,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그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유일한 창문이었고
다니엘에게 기도는
사실 바로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도움을 얻던 청소년이었지만
기도에 자신을 묶어버린 노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주님께로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길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

신영덕

내가 미흡해도 모자라도
나의 주님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셔서
평안함 있고
안식이 있으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
길을 걸을 수 없을 때에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
가까이 임해 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주님이 얻고 싶어 하시는 영혼
주님으로 인하여 잘 섬기고
그 날에 주님 얼굴 뵈옵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의 감사

이아영

주님!
매 순간 순간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은
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힘이 들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 되어 주십니다.

하루살이

이찬우(중2)

주님!
매 순간 순간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은
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힘이 들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5월 6일(18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